



연녹색옷 입은 고목 오래된 나무도 싱그러운 연녹색으로 옷을 바꿔 입기 시작했다. 23일 광주유암초 학생들이 청록색 나뭇잎이 피어나고 있는 북구 충효동 호수생태원 자연학습장을 거닐며 생태탐방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학업포기' 고교생 계속 는다

작년 '학교부적응' 1432명...전국 평균 웃돌아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 등 지도대책 마련 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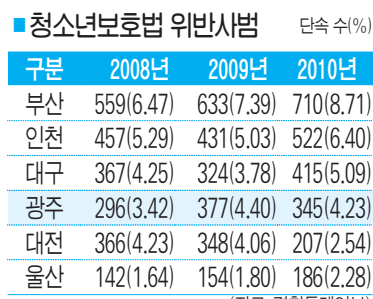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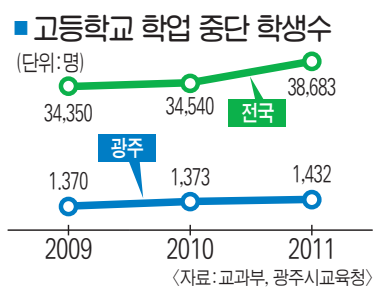
최근 학교 폭력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학교폭력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학내 대책' 못지 않게 위기에 처한 '학교 밖 10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지역에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한 '학교 밖 학생' 숫자가 꾸준히 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건 비율도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사실상 미흡하기 때문이다.

최근 학교 폭력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학교폭력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학내 대책' 못지 않게 위기에 처한 '학교 밖 10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지역에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한 '학교 밖 학생' 숫자가 꾸준히 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건 비율도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사실상 미흡하기 때문이다.

23일 광주시의회 김진호 의원(교육·서구)에 따르면 광주지역 학업 중단 고등학생 숫자는 지난 2009년 1370명(2.13%)에서 지난해 1432명(2.11%)으로 증가해 전국 평균 학업 중단율 1.97%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업 중단 사유로는 학교 부적응이 5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사 336명 ▲질병 75명 ▲폭행 20명 ▲기타 458명 등으로 집계됐다. 광주지역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의 수는 지난 2008년 296명(3.42%)에서 지난해 2010년 345명(4.23%)으로 증가했다. 반면 청소년 범죄는 2010년 4071건에서 지난해 3660건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청소년 범죄는 광주지역에서 매일 10건 이상 발생하고, 이 중 절



도 폭력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광주지역 고등학생 중 부적응 학생의 비율이 늘

고 있는 것은 의무교육이 적용되는 중학교와 달리 학부모와 학생 본인의 의지로 학교에 복귀하지 않는 이상 선도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예산은 8150만 원에 그치고 있는데다 지난해 7월 제정된 '광주시 학교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지원 조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학교 부적응 청소년 규모는 2008년 7만3494명, 2009년 7만1769명, 2010년 6만1893명으로, 전체적인 부적응 청소년 규모는 감소 추세지만, 고등학생의 경우는 2008년 1만4015명, 2009년 1만6267명, 2010년 1만5267명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등산 정상 개방

28일 노선버스 증차

광주시는 무등산 정상이 개방되는 오는 28일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등산장(원효사)행 시내버스 1187번과 1187-1번 등 2개 노선에 평소보다 13대를 증차한 총 23대를 투입해 평균 6분 간격으로 운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평일 무등산장행 시내버스 1187번 노선은 28일엔 1187번 노선은 광천동에서 무등산장까지 8~10분 간격으로 171회 그리고 1187-1번 노선은 산수오거리에서 무등산장까지 20~25분 간격으로 56회씩 각각 운행한다.

/홍행기자 redplane@

'감기약 먹고 실명'

30대녀 5억 손해

감기약을 먹은 뒤 부작용으로 양쪽 눈이 실명되고 심한 피부질환을 앓은 한 여성이 정부, 제약사, 병원, 약국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3일 법무법인에스에 따르면 김모(여·36·부산시 사직동)씨는 감기약 부작용으로 실명 등이 나타났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감기몸살로 동네 약국에서 A제약사가 생산한 일반의약품으로 성분명이 아세트아미노펜, 푸르실티아민인 감기약을 사 이틀간 복용했으나 온몸이 무시고 가려우면서 고열이 났다.

처방약을 먹은 뒤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해진 김씨는 인근 의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았고 스티븐슨슨 증후군(SJS)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스티븐슨슨 증후군=약물의 특정 성분이 알려지 반응을 일으켜 인체 피부와 점막이 벗겨지고, 심하면 실명과 사망에 이르는 약물 부작용이다.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49분 해질 19시 12분 달돋이 07시 23분 달질 21시 57분

광주 최고 27도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도시	날씨	최고/최저
광주	맑음	13/27°C
목포	맑음	13/24°C
여수	맑음	15/21°C
나주	맑음	10/27°C
완도	맑음	11/27°C
구례	맑음	9/27°C
강진	맑음	10/26°C
해남	맑음	9/26°C
장흥	맑음	9/26°C
순천	맑음	12/26°C
영광	맑음	12/27°C
진도	맑음	10/25°C
전주	맑음	11/29°C
군산	맑음	11/27°C
남원	맑음	8/28°C
육산도	맑음	12/19°C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지역	중양	파고	미물	쌀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5m	목포	03:53 ~ 09:04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1.0~2.0m	여수	15:44 ~ 21:00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5m		10:26 ~ 04:25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1.0~2.0m		22:59 ~ 16:2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5(수)	26(목)	27(금)	28(토)	29(일)	30(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17/21	11/17	7/21	9/23	11/23	12/24

법원, 화정주공 입주민에 부동산 인도 명령

U대회 선수촌 건립 탄력받을 듯

2015년 광주하계U대회 선수촌으로 쓰일 광주시 서구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 재건축조합이 입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4단독 조영호 판사는 23일 "조합이 입주민 손모(31)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부동산을 조합에 인도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현금청산 대상자 100여 명과 심리가 진행중인 인도단행가처분 신청 소송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돼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된다.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서구 화정동 621번지 일대 19만 4496㎡의 면적에 3726가구를 건설해 광주U대회 선수촌으로 임대해 사용할 뒤 일반에 분양하는 국내 최초의 재건축 사례다. /윤현기자 chadol@

since 1982

창업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 봉사 OFF SALE

www.kjhr.com

본점 062)227-9940 목포점 061)262-9200 서울점 02)765-9940

총장점 062)227-9970 장흥점 080)222-9975 순천점 061)752-9940

광주일보 since 1952

70th Anniversary

행남자기 창립 70주년

70년 역사의 행남자기가 아름다운 생활문화를 창조합니다.

행남자기